

## 2천년대 성당건축

### Historical Authenticity Expressed in Architectural Styles of the Church for 21st Century

#### 호세 라파엘 모네오의 「천사의 모후 성당」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는 지금 세계적인 건축가 호세 라파엘 모네오(Jose Rafael Moneo)가 설계한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이 지난해 9월 착공식에 이어 건축되고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미국의 최고 건축가들을 양성하는데 전력하였던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이념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이 성당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거세게 불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건축풍에 대한 그의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역사적 윤리성이 어떻게 현실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서, 지나치지 않은 절제된 현대 건축의 추상성속에서 미래를 통해 계속 전달되는 역사적 이념을 건축을 통해 잘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라파엘 모네오의 건축세계를 천사의 모후 성당 건축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

1937년 스페인에서 내란중 출생한 모네오는 어린 시절을 스페인 프랑코에서 보냈고, 예수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마드리드에서 학업을 마친 그는 1961년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이너인 덴마크의 건축가 존 우트존(Jon Utzon)과 일하였고 그후 2년동안 시실리와 로마에서 특별 연구원으로서 고전적인 건축교육을 받았다.

이후 모네오는 1970년 세계 곳곳의 젊고 유망한 인재들의 관심을 끌던 뉴욕의 피터 아이즌먼 건축/도시계획 연구소(Peter Eisenman's Institute for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에 들어갔다.

모네오는 1980년대 중반까지 마드리드의 아토차 기차터미널과 메리다의 로마예술국립박물관의 설계를 맡았는데 그중 로마예술국립박물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단순한 표면성에 대응하여 자신의 각별한 역사적 이해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후 하버드 건축디자인 대학원의 학장으로 취임하여 형식적인 이론과 허구적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양극사이에서 방향을 상실한 건축설계 학도들이 나아가 할 좌표로서 보다 진지하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건축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축의 윤리적 근본에 큰 관심을 보였던 건축의 대가 모네오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겸허함을 배우게 되었다.

호세 라파엘 모네오는 건축이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프로젝트들 안에서 건축의 진실성을 하나의 수양으로 여기며 모든 형태들 뒤의 이론을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에게 건축이란 미래를 향한 성급한 표현이 아닌 시적 추구인 동시에 도덕적 임무였다. 1990년 하버드 건축디자인 대학원의

총장직을 떠난 이후 모네오는 실재없이 건축을 통해 그의 생각과 소신을 실현해가고 있다. 그는 현재 워싱턴주의 스페인 대사관저와 스톡홀름의 현대미술/건축박물관을 디자인 중이며, 휴스턴의 미술관, 스페인 산 세베션의 쿠르사알 강당과 국회센터는 건설중에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마호니 추기경은 1996년 9월 그의 교육 배경이나 작품의 철학적, 윤리성을 기초로 그를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의 건축가로 임명하였다. 그는 또한, 마호니 추기경이 이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그를 세계에 생존하는 위대한 건축가들중 하나로 명명한 1996년도 프리즈커상을 수상함으로써 그의 거인성을 명백히 하였다.

### 천사의 모후 성당-건축 배경

로마에서 발굴된 후 미국 카톨릭교회의 부흥을 위해 미국으로 전해진 성녀 비비아나의 성체를 모시기 위해 1876년 벽돌과 모타르로 건축된 천사의 모후 성당은 이후 늘어나는 카톨릭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개축, 혹은 신축되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다 마침내 19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구 성당을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천8백만달러에서 2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자,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마호니 추기경은 119년동안 유지되어온 성당을 철거하기로 결정, 이어 4백50만의 카톨릭신자들로 구성된 대교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성당을 건축한다는 계획을 1996년 7월 발표하였다. 또 5.53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신축성당의 건축가로서 라파엘 모네오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명의 로스앤젤레스 토박이 건축가들인 프랭크 기어리와 보다 미래 지향적인 율동의미를 추구하는 탐 페인이 책임자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번 성소 디자인의 최고 선택권자인 마호니 추기경은 그 자신이 생활화해온 카톨릭 교회 철학에 근접한 모네오의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모네오를 임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세계를 무대로 모네오가 창조해온 건축물들이 세심한 역사성과 존재성을 미래적인 건축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2000년 9월에 완공예정인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천년간의 역사를 재창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마호니 추기경은 예보하였다.

### 천사의 모후 성당-건축 규모

새로이 건축될 성당은 거의 3천명에 달하는 신자들과 미사를 드릴 수 있고 제대에는 미사집전 성직자들을 3백50여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공사비는 약 5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5개의 주요 건물들은 본당, 약 3에이커에 달하는 오픈 플라자, 주차장, 성당사무처 및 컨퍼런

스 센터와 대주교, 성직자들의 숙소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9월 21일 시공되어 2천년 여름까지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정식은 2천년 9월 4일로 잡혀 있다.

현재 성당의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건축현금은 단머피재단과 토마스/도로시 리비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다. 종탑에는 38개의 종을 달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도록 건축될 예정이다. 지진에 대비하여 기초공사시에 기초분리공법(Base Isolation System)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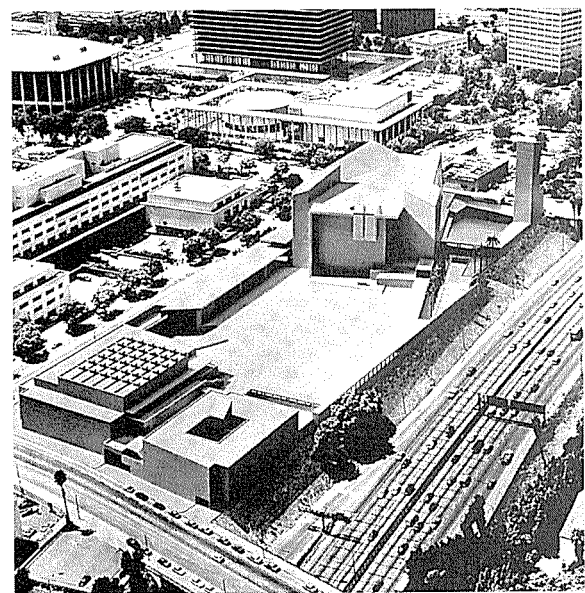
유리자재는 대부분 알라비스타 유리를 이용하여 자연채광이 손쉽게 성당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된다. 또한 성당의 지붕은 구리재를 사용하여 밤과 낮에 건물이 빛을 환하게 발휘하도록 자재선택하였다.

### 천사의 모후 성당-디자인

최근 모네오의 영혼의 중심지는 다름 아닌 냉철한 세속적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다. 모네오와 같은 유명 건축가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복판에 건립될 성당건축에 표현하고자 하는 비는 신에 대한 경건함의 표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그는 후기산업사회의 진전으로 문화적인 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나 극도의 개인주의적인 문화경향을 극복하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연결시켜주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중심에 인간의 세속성과 다양한 차이를 초월하여 신 앞에 하나의 일체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당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

모네오에게는 성당 건축이야말로 과거 및 현재의 역사 및 이념을 미래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21세기 성당건축 양식

수단이다. 과거 성당의 벽과 천장, 그리고 건물 기둥에 그려진 각종 벽화와 건물은 과거 및 그 시대의 역사를 동시대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모네오는 '성당건축은 단순히 역사성이나 신의 절대성을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적, 이념적 차이들을 융합하여 하나라는 일체감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세워질 천사의 모후 성당에서도 모네오는 이와 같은 자신의 종교관을 표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모네오는 성당양식으로 르네상스양식이나 로마네스크양식보다는 고딕양식이 신의 완벽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양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성당의 건축양식으로 모네오는 바로크 풍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간과 신의 접촉을 자연채광을 통하여 신비스럽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인간에 대한 신의 경외감, 성소의 신성함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천만달러 규모의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의 설계에 있어서 모네오는 깔끔한 스타일의 스페인식 저택을 상기시키는 건물의 형상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작업을 통하여 그는 로스앤젤레스 시안에 정신적인 융합의 뼈대를 굳게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갈 영적인 힘을 심어보려 하고 있다. 매일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삶 자체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공간, 좀 더 높은 차원의 명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간의 창조를 통하여 영적 승화에 대한 긍정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배어 있는 역사의 진실성에 대한 신념은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건축 언어가 미래성을 추구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에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성전의 디자인에 있어서 마호니 추기경은 모네오로 하여금 무질서를 피해 개개인의 믿음생활과 직무상의 예배생활을 위한 공간들을 분리해주길 바랐고, 모네오는 성전 건축 평면도를 과감하게 재구성하므로써 이 요구에 응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성전 디자인에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건축 언어가 신성함과 고결함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모네오의 컨셉트는 이러한 전통의 연장으로 강렬한 생동감을 더한 불균형한 형태들간의 통일된 정서의 조화를 보여주려는데 있다. 대성전, 추기경 관저, 교구센터, 종탑, 그리고 명상을 위한 정원이 드넓은 플라자 건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전통적인 미션 양식과 흡사하지만 건물들의 설계 자체는 놀라우리 만치 현대적이다. 중앙부의 예배공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채플들이 외부로 향하여 연결되게 설계되었고 대성전은 대지의 남서쪽 코너에 펼쳐진 특별한 장식이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의 외관을 지녔고 플라자 또한 아케이드를 이룬 인도로 둘러싸인 꾸밈없이 광대한 건물이다. 대성전은 이처럼 거침없이 펼쳐진 형태의 건물들에 정신적인 무게를 더해준다.

역할을 하는 듯하다. 이 대성전의 아름다움은 형태를 시작하면서도 현대적인 비전으로 현실화시키려는 모네오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모네오는 도시의 중심부에 거리로부터 엄숙하게 내면으로 향하는 이상적인 환경을 창조해 낸 것이다.

모네오의 대성전은 건물 그 자체가 섬세한 영적 행렬의 일부이다. 방문객들은 플라자의 맨 끝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를 지나는 대계단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교회 건물의 전형적인 입구인 본당 회중석의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거리는 긴 아케이드를 통해 플라자를 가로질러 제대편으로 입장하여 내부의 보행로를 지나는 111미터나 된다. 성전의 뒷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돌아서서 제대를 볼 수 있는데 이 여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다. 모네오는 방문객들에게 쉽게 얻어지는 영성을 설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긴 여정이 무미건조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교 관구는 로스앤젤레스의 카톨릭교회 역사 이야기를 그릴 벽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2천년대 후세대들에 의하여 서서히 완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렬감은 여러 정원들의 구조에서도 되풀이되는데 이를 통하여 방문객들은 넓은 플라자로부터 보다 사적인 명상의 공간들로 인도된다.

성전 북쪽 측면의 외부는 유리로 되어있고 외부로 향한 채플들은 명상의 정원과 종탑이 바라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외부조경과의 시각적인 연결로 채플안의 분위기는 경이로우리 만큼 정적이 된다. 채플 뒷면은 이중벽 시스템을 사용하여 빛이 여러 공간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고 외부벽은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된다.

내부벽은 수평으로 쪼개어 빛이 아래로부터 채플 안으로, 또 고창층으로부터는 본당 안으로 은은히 스며들게 하여 인상적인 조명이 되도록 디자인하여 성전 건물 자체가 빛, 사람, 그리고 영혼의 여파기가 되는 듯 하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은 총체적으로 자연, 인간, 그리고 신이 평화로이 공존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완성될 것이다. 고결한 영혼의 성체를 도시의 혼돈속에 과감하게 기획하므로써 모네오는 영적인 지혜로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 신세계를 창조해가고 있는 것이다.

모네오의 대성당과 프랭크 기어리의 디즈니 홀이 모두 완성되면 로스앤젤레스 시내 중심가는 대조적인 이데올로기의 경이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은 각박한 도시의 삶 속에서도 영혼의 치유를 가능케 하는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